

제 216 호

주의 세례 축일

1977 1. 9

숲정이

발행인	김흥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



10,000원짜리

주일 봉헌금

김 스테파노 신부

「너는 살았을 때 나에게 10원을 주일 봉헌금이라고 바쳤으니 나는 너를 정녕 모르노라...」라는 내용으로 얼마 전에 본란에 강론을 실렸던바 몇몇 교우들의 공박에 해명하느라 언성을 높인적이 있었다. 그랬으면서 77년 새벽부터 10,000원짜리 봉헌금에 대한 강론을 운운하게 되고보니 교우들의 구설에 77년 환해가 무사할지 심히 염려스럽다.

전북대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우 간호원끼리 조직된 「아가다」 회원들이 얼마전에 한국 가톨릭의 교보(敎寶)격인 금남조(막달레나) 시인을 초대하여 전동 성당에서 교양 강의를 한바 있었다.

그 다음날에는 해성학교 숲정에서 해성생 300여 교우 학생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신부님 주례로 금남조 詩人의 강론을 듣고난 후 봉헌의 예절이 막 시작하려는 참에 정숙했던 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현금 바꾸니는 신속하게 손에 손을 거쳐 10원짜리 동전이 서로 맞닿는 소리와 함께 내 차례까지 돌아왔다. 평소 주일 현금을 1,000원짜리 지폐가 나온 후 부더 줄곧 1,000원 짜리만 바쳐 왔기에 서슴없이 1,000원짜리를 내고보니 10원짜리 동전위에 잘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만스럽게 보여질까봐 염려스러웠던차에 현금바꾸기가 金女史님의 손에 건너졌다. 女史님은 미리 손에 쥐고있던 현금을 바꾸니에 넣었다. 아직 손때도 묻지않은 10,000원짜리였다. 나는 이때까지 봉헌에 대한 감명과 참뜻을 이렇듯이 느껴본적이 없었다. 金女史님의 봉헌금에 대한 화제는 날개라도 돌친듯 해성생은 물론 숲정이 편집실에까지 번져 「숲정이」를 통하여 전 교구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알려진 바 있었다.

10,000원짜리 현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많다. 어느 무상회때 있었던 일이었다. 파견미사 봉헌중에 연일 수고한 강사님이 10,000원짜리를 봉헌한 것을 알게 되었다. 10,000원짜리 봉헌보다는 그가 봉헌한 뜻이 더욱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다. “교우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 제물로 마땅히 이 만큼은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이었다.

봉헌금은 액수로만 측정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로되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봉헌 정신은 확실히 결여(缺如)되어 있다.

예수께서 연보통 옆에서 현금내는 것을 지켜보시고 정성스러이 봉헌한 과부의 동전을 칭찬한 성경말씀(마르코 12장 44절)이 떠 오른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믿음은 결단을 요구한다.

당신은 세례를 받을 때 마귀를 쫓고 신앙을 고백했다. 당신의 신앙은 사랑이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신과 교회를 믿음이다. 사랑이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사랑이신 당신의 하느님은 당신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실없는 떠벌이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당장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이다.

민부의 차가 극도로 심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인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진 이야기일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와 그의 복음을 잔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잔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회개혁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아시아 주교회의).

「우리의 책임은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폭력, 빈곤, 불의를 나타내는 데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새로운 차원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악의 결과만을 상대해서 투쟁했지만 지금은 악의 원인을 제거할 힘이 주어졌 있기 때문이다.」(베어루트 세계 개발회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랑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야고보 2장 14절)

숲정이 산책



금님에도 잘 달려 봅시다.



3·1사건 항소 공판 방청기(10)

김 영 신 신부

1976년 12월 29일 오후 2시 13분, 소위 3·1사건 항소 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기자와 기관원을 포함한 25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메웠다. 사복차림의 검사도 3명이나 눈에 띄인다. 변호사는 27명 가운데 불과 10여명만 참석했다.

여의 때나 마찬가지로 경계와 조사가 철저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입구의 기관원들이 방청권을 회수하는 점이 다.

재판장은 김대중씨 외 10명의 병보석 신청에 대한 기각을 선언하고 판결문을 낭독해간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서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① 기소내용의 객관적 주장(법률적 입증)이 없다.
- ② 공공질서를 고의적으로 해치고자 한 바도 없고
- ③ 정치적, 경제적, 현실과 법률에 대한 평가는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④ 구국선언문, 호소문, 경과보고, 양심선언 등을 전체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을 부분 부분 잘라서 법적용을 한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면, 김지하에 대한 성명문과 호소문은 지금까지도 현출되지 않았고, 기소내용도 원문에 없는 말이다). 따라서 무죄가 되어야 한다.

2. 검찰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너무나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 3. 판결요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 ① 국가적 현실을 왜곡한 점이 사실이고
 - ② 정치적, 경제적, 법률에 대한 현실비판은 문장의 일부라도 법적으로 저촉된다. 따라서 긴급조치 9호 2항 7항과 형법 62조, 67조에 의거하여 원심을 깨고,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퇴장했다.

기소된지 2백7십5일. 1심과 2심에 대한 공판이 열리기 25회. 심각하게 다루려던 것처럼 보이던 사건이 불과 17분만에 결론이 나고 말았다. 18명의 피고인이니, 피고 1명에 불과 1분이 안걸렸다.

지난 9개월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27명의 변호사들이 사라사유 버리고, 온갖 어려운 여건들을 외면한 채 무죄를 주장했었다. 더우기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한 자세로 침묵을 지키던 교회가 지학순 주교 사건 이후, 이 사건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 양면으로 애를 썼다.

1970년대의 한국 천주교회-74년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되어 지학순 주교 구속 입진, 75년 10년 징역을 선고 받은 지학순주교 형집행정지, 76년 문정현 신부 등 5명의 사제가 3·1사건과 관련되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징역 3년 내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그런 가운데 76년이 넘어가니 무언가 아쉬움이 가슴에 그득하다.

그 아쉬움은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케 한다.

「가야파라는 대제관 관저에 모여 예수를 잡을 흉계를 꾸미고 죽일 모의를 한 대제관과 백성의 원로들(마태오 26, 3-4).

유다스의 배 늦은 후회- 내가 죄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27, 4) 빌라도의 비겁한 발뺌- “당신들이 맡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소”(24절) 군중들의 무책임한 흥분- “그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25절).」

이 시대의 민중사를 꾸며나가는 나는 어느 역인가? 대제관? 유다스? 빌라도? 군중? 영원한 진리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의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공도 해야 하고, 경제성장도 가져와야 한다. 이 모두는 우리가 보다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하다. 따라서 안보, 성장, 인간의 존엄성은 서로 팽팽한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며 성취되어야 한다.

성직자와 종교인들이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함이 하느님을 배신하기 위해서인가? 민주인사들이 구국선언을 함은 잠옥에 가더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인가? 대학생들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는것은 공부하기가 싫어서인가? 성직자와 종교인, 민주인사와 대학생들이 너무 지나쳤다고만 말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성직자와 종교인들이 수육(受肉, Incarnation)하신 그리스도처럼 천사회속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자들을 해방시키고자 권세 많고 부유한 자들을 대항하여 진리와 정의의 부르짖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한다면 너무나 지나쳤는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을 견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회개를 부르짖은 요한 세자를 닮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무사와 안일을 위해 중세 교회처럼 권력에 편승하여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3·1사건은 우리에게 귀와 눈을 열어주어 하느님의 뜻을 듣고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감사로운 일이다. 이제 이 감사로운 일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느님의 뜻을 바로 읽어야 겠다.

<교구 관리국장>

전자장판·믹사(OSTAR) 대아 전자 전복대리점
약탕기(맥스웰 사이폰) 전 주 대 리 점

광 신 전 업 사

박 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앙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 양지쪽 □

감사합니다

강 무 웅

1976년 12월 19일, 저희 공소 관공성사 때에 새식구 8명이 영세 입교하였습니다. 비록 숫자로는 적지만, 황산별 한복판에 그 위세도 당당한 개신교 세계에서도 결코 우리는 생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새식구 8명이 탄생한 것은 삼례본당 기리에 단원 12명 아가씨들의 뜨거운 정성에 힘입은 것입니다. 남자들도 얼굴을 찌푸리는 나환자촌을 그 용감한 아가씨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바쁜 시간을 틈내서 지난 6월부터 저희 익산 나환자촌 공소를 자진해서 찾아주었습니다. 가정방문, 교리지도, 성가지도가 그들의 여가선용 방법이었습니다.

그 용감한 아가씨들은 유명자(會長), 김운재(副會長), 오미숙(總務), 임옥선, 조정순, 이명자, 홍남구, 백수영, 이경자, 임춘심, 최문희, 정정숙양입니다.

이들은 본당에서 10리길이 넘는 저희 공소를 찾아 주었습니다. 더구나 그 옛날에는 산적이 우글거렸다는 그 강도굴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오셨습니다.

오직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마 성세식을 집전하시고 귀가하던 본당 신부님도 황산별을 휩쓰는 매서운 바람이 그다지 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저희 공소를 건립하여 주신 교구내의 많은 신자들의 따뜻한 정성에 감사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음해에는 더 많은 입교자를 탄생시키겠습니다.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익산 공소 회장〉

(시조)

성 당

김 환 식

내 누군줄도 모르고
허둥 대던 벼랑에서
말씀의 그림자를
원뢰(遠雷)로만 여기다가
개명의
신들메 떨고
어베 품안으로 들니다.

사그라지는 가슴에
불지르는 종소리가
헛 집질로 굶어진 등,
빈손을 모두는데,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첫 울음이 납니다.

물로 이 몸을 빚고
늘 깨어 있으라 하십,
태초의 말씀은 길이요
사랑은 빛으로 하여
참으로
가난치 못한 마음을
어려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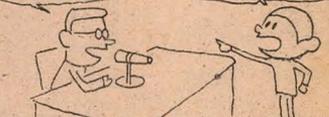
〈금산 천주교회〉

요십이 김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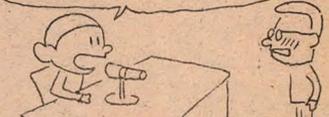
일기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초부터
추운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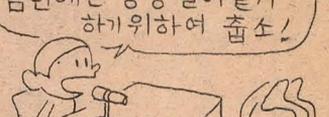
시베리아의 찬 바람이...
그것이 아니요
내가 말하겠오



나쁜 병균이 낮은 온도에서
사는 꼼짝 못하는 것같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금년에는 끔찍 얼어붙게
하기 위하여 춥소!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5013
김원준(야코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세느 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②6219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 상 범(벨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4544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②658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③8548)

건강 상담, 특수 처방

동양약국

군산시 문화동 880-5
〈카디날 장강 공장 앞〉
약사 김예자 〈마리아 막달레나〉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당)
전화 ②166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
지
사
항

1. 교구 실무진-부주교, 사목국장, 관리국장, 사목부국장, 평협 사무국장
-각 교구 견학(11일<화>-14일<금>).
2. 성심·해성 교직원 연수회(17일<월> 오전 8시30분 등록, 가톨릭 센터)
3.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17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4. 일치 주간(18일-25일)...교회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 농민회 정기총회 2월 7~8일로 연기...1월 22~23일 예정이 2월 7~8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노송동 프란치스코 청년회(회장 박장준) 신설 본당 용안 성당에 성금 12,860원 기탁.
숲정이에 실린 딱한 호소를 형제애로 받아드린 노송동 청년회는 지난 성탄절에 복권놀이에서 얻은 이익금을 기탁했음.
□ 가톨릭 시보 수급 사원으로 범 덕배(며또)씨가 수고하기로 되었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1976년이 저물고 1977년이 밝았습니다.
밀린 대금 청산해주시고 신년은 1분분 전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2. 다음주 성모회 월례회
3. 사도회 임시총회 : 공식미사 후 ※교문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님은 꼭 참석 바랍니다.
4. 경향잡지 및 소년 구독신청-성 바오로 서원
5. 청년 합창단 임원 보선 : 회장-김욱기(요한 비안나) 부회장-김대균(다두), 노순덕(릿따)
6. 꾸르실로 안내 : 남성 10차(1월 18일~21일), 여성 3차(1월 25일~28일)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신청-사무실
7. 미사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8. 77년 1월 2일 순정이 행사표는 사도회장님께서 개인 부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우금을 납부합니다 : 월별로 납부해 주세요.
2. 교우회 회합 : 11일<제1반> 다가 4가, 1반-반장(이정우), 반회장(신영애), 이순우씨(누시아)덕에서, 13일<제3반>다 1, 2, 3반-반장(봉영숙), 김 안나씨덕에서, 14일<제4반>중앙동-반장(홍명신), 유기순씨덕에서 ※ 7시반-가정방문, 8시-회합시작.
※ 교우 회장님들은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우회 : 오늘 공식 미사후
4. 주일학교 동계 특별교리 : 11일~15일까지, 시간-9시반 부터 11시까지.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빠짐없이 보내 주세요.
5. 판공성사 보지않으신 분은 조속한 시일내에보십시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으렴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공소회장 모임 : 오늘 본당 사제관에서.
3. 성 프란치스코 청년회 피징 : 1월 15일 오후 2시-저녁 10시까지. 전 회원과 뜻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 300원)
4. 교리 및 미사시간 변경(1월 16일부터)어린이와 중 고등학생 교리 및 미사시간이 매 주 일요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①국민학생<교리시간 : 오후 2시 30분, 미사시간 : 오후 3시 30분>
②중고등학생<교리시간 : 오전 9시 15분, 미사시간 : 오전 10시에 시작>.
5. 단기 공소순회 아동 교리교육 실시 : 교리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미사시간-오후4시30분
※일정안내 : 18일(화)-황정리 공소, 19일(수)-신원리공소, 20일(목)-황운리 공소, 21(금)-다리리 공소, 25일(화)-신교리 공소.

1. L·M 간부회합 : 10시 미사 후
2.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십시오
3. 교우금 : 76년도 미납되신 분은 속히 완납 바라며 77년도분 신입하지 않으신 분은 신입바랍니다.
4. 반상회 : 11일-5반, 12일-6반, 13일-7반, 14일-8반.
5. 예비신자 안내 : 16일 10시 미사후.
※교우분들은 1인 1도 친절한 안내 바랍니다.
6. 신용조합 이사회 : 공식 미사 후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함철
보좌 신부 함기호
사도 회장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1. 청년회 동계 등산대회 : 1월 13일~14일 장소-무악산, 회비-600원 ◎ 많은 참석바랍니다.
2. 전례 위원장-차금철씨,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3. 신축헌금 : 김병하, 박종만(각 1만원), 한영자(5천원) 이정우(4천원), 김덕익(5천원)
합계 31,000원. 총 누계 5,555,500원
□아직 미 신입하신 분은 속히 신입해 주세요.

1. 자모회(11시), 장우회(저녁미사 후)
2. 성가정회 : 월요일 오후 2시.
3. 예비자 등록 : 다음 주일부터
4. 영세자 사진 찾아가시오.
5. 신용 조합 월례회 : 14일 저녁 7시반(신협 사무실)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임원명단 : 회장-전종근, 부회장-김귀권, 허옥순. 전례위원장-이기호, 선교-강원모, 봉사-강용재, 제경-엄익봉. 감사-김영진, 송제진. 교문-이상용
2. 미사 참례시에는 성경, 성가집 기도서를 꼭 지참하십시오.
3. 미사시간 10분전에 오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4. 학생회 조직 : 10시 미사 후, 중고등학생은 전원 남아주세요.
5. 어머니 미사 :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6. 유아세례 : 매월 끝주 금요일 어머니 미사 후.